프랑스 농축산업과 유기농 시장

안 규 미 *

1. 들어가며

다채로운 정보가 공개되고 여러 매체를 통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졌다. 농업생산과 식품소비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생산, 가공, 유통 관련 정보를 열람할 경로도 최근 늘고 있다. 식재료가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에 수반되는 환경 영향과 식품 안전을 점차 많은 소비자들이 고민하게 된 것이다. 기술 환경 변화와 함께 식품소비자의 선호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친환경 방식으로 재배되었다는 마크가 붙은 상품은 이제 작은 슈퍼마켓의 신선채소와 유제품 코너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별도 유기농 가공식품 전문점도 늘어났는데, 진열대에는 여전히 유럽산 제품이 많다. 그 가운데 유기농 곡류가 함유된 과자, 과채주스, 치즈, 와인 등에 이르는 다양한 품목이 프랑스에서 들어온다.

프랑스는 오랜 세계적 농업강국이다. 우리나라 소비자 사이에서도 프랑스산 식품은 품질 우수성과 품목 다양성으로 신뢰를 얻고 있다. 프랑스는 농업에 적합한 기후와 넓은 영토를 기반 삼아 오래전부터 지역별 농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유럽 역내에도 다량의 농산물을 공급해왔다. 이를 아는 사람들에게 프랑스 유기농 시장의 성장세와 규모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유럽 국가들에 비해 프랑스의 유기농업 시행농가는 흔치 않았고 유기농 소비의 이점을 인식하는 소비자도 많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십여년간 프랑스에서 유기농업 면적과 식품 시장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은 프랑스의 농업과 식품 부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 배경에어떤 요인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 최근 프랑스 농업 구조와 시장 동향을 개괄한다. 먼저, 프랑스 농업 인구, 구조, 생산, 수출입을 아우르는 농업 전반의 동향을 살펴본다.

^{*}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University of Sussex 박사과정 (k.ahn@ids.ac.uk).

글의 후반부에서는 프랑스 농식품부문의 주요한 변화의 하나로서, 급격히 성장하는 프랑스 유기농 생산과 소비 동향을 짚어본다. 끝으로, 프랑스 농업 현황과 변화 과정의 함의를 이끌어내며 글을 맺는다.

2. 농업 현황

2.1. 농업구조

일찍이 농업을 발전시킨 프랑스는 특히 산업혁명 이전부터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식품 생산자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농업은 프랑스가 선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소규모 농가가 주를 이루었고 경제활동인구의 35%가 농업에 종사했다. 이후 프랑스 정부는 농업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농가가 과학적 농법을 적용하고 현대 설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1997년 조사에 따르면, 그 결과, 약 86%의 농가가 적어도 1개의 트랙터를 소유하는 등 전국 농가의 생산 시설과 장비가 확대되었다. 관개농지 면적도 1979년에 비해 1997년 두 배가량 늘어났다(Agricultural Dept. of the French Embassy in Washington (ADFEW) 2015). 프랑스 정부가 추진한 농업 현대화 정책 외에도,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이하 CAP) 실시와 새로운 시장의 형성 또한 프랑스 농업 구조 변화를 견인했다(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de l'alimentation 2015).

프랑스는 여느 산업화한 국가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기술, 관광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부문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동시에 유럽연합 역내뿐만 아니라 세계농산물시장에서 농업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대륙의 자국영토 53%(비유럽 해외영토 제외)에 달하는 넓은 농지면적을 보유하고 농업생산에 적합한 기후와 지리적 요건을 지닌다. 천혜의생산 환경에 더불어,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의 여러 보조지원책이 프랑스가 농업강국지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프랑스 농업 구조는 대체로 EU의 공동농업정책의 방향과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여 발전하고 개혁되어 왔다. 농업노동인구 비중 감소도 EU 농업구조 현대화 정책의 결과 중 하나라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프랑스 농업 고용비중은 약 2.9%에 머물렀고, 최근 십년 국내

GDP 대비 농림어업생산액 비중은 2%를 하회한다<표 1>. 1980년대 초반 이 비중이 8%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농림어업 비중은 상당히 줄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 28개국 전체 농업생산액의 2018년 18%가 프랑스의 몫으로, 회원국 가운데 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가 두 번째로 높은 농업 부가가치를 창출한다(EUROSTAT; 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de l'alimentation 2015).

<표 1> 프랑스 주요 경제 및 농업 생산 지표

지표	1995	2005	2016
인구(백만 명)	58.2	61.2	65.0
농촌인구(백만 명)	14.6	14.1	13.1
농업부문 재정지출(%)	_	0.7	0.3
경종작물 수확면적(백만 ha)	12.9	13.5	14.1
농업 고용비중(%)	4.9	3.6	2.9
여성고용인구 대비 농업 고용비중(%)	3.7	2.3	1.6
생산자당 농업생산액(달러)	30,695	41,301	52,472
농림어업 GDP 비중(%)	2.4	1.7	1.4
농지면적비중(%)	55	54	52
유기농업 면적(ha)	_	551	1,537

자료: FAOSTAT; DataBank The World Bank.

토지합병과 농업 구조 개혁을 거치며 프랑스의 농업경영체(agricultural holdings) 수는 줄어들고 평균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보유농지면적을 기준으로 한 농업경영체 평균 규모는 1960년대 중반 15ha, 1980년대 후반 28ha, 1995년 38ha에서 2015년 55ha까지 증가했다. 1980년대 후반에는 100만 호 이상,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약 70만 호가 있었다가, 2013년에는 총 47만 2,210호의 농업경영체가 남았다. 지난 십여 년간 재구조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농가 수는 감소하고 농업경영체의 평균 영농규모는 커졌음을 가늠할 수 있다<표 2>(EUROSTAT).

<표 2> 농업경영체의 규모별 분포

단위: 호

보유농지면적	2005	2007	2010	2013*	추세
0ha	5,570	5,390	9,490	8,500	_
5ha 미만	142,110	125,050	129,270	107,870	감
5-19.9ha	110,140	100,640	96,790	85,860	감
20-49.9ha	109,480	99,220	88,520	79,050	감
50-99.9ha	112,950	106,650	97,780	93,330	감
100ha	86,880	90,410	94,250	97,600	증
합계	567,140	527,350	516,100	472,210	감

주: 2013년까지 농가규모별 분포 자료 제공

자료: EUROSTAT.

농업부문 고용인구는 1998년 100ha당 4.7명이었고 2007년에는 동 면적당 3명으로 감소했다. 경지면적당 투입되는 노동력이 점차 감소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체 경제활동인구대비 농업인구 비중도 점차 줄어들어 2016년 2.9%까지 낮아졌다<표 1>. 그러나 채소류생산 등 전통적으로 농업이 활발한 아키텐(Aquitaine) 주는 전체 지역인구의 10%가량이 농업에 종사하며 후방산업의 하나인 식품가공업 고용비중도 10%를 훌쩍 웃돈다. 지역별농업고용비중과 평균 농장 규모 등의 차이가 다소 크다.

2.2. 농업수자워

프랑스는 넓은 국토의 절반이 경작지이거나 목초지이고, 전국적으로 강우량도 풍부해서 농업용수 이용에 큰 차질이 없었다. 지역별로 다양한 기후대와 토양 구성도 프랑스의 농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환경으로 작용했다(Encyclopaedia Britannica). 관개용수는 남동부와 남서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용되고 다른 지역은 강우량이 풍부해 관개 이용률이 아주 높지는 않다. 농업부문에서는 재생 가능한 담수자원의 약 2%를 사용하는 가운데, 현재의수자원 이용 모델이 향후 기후변화 양상에 따라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업부문이 많은 양의 수자원을 소비하지만 농업용수 이용량은 주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높다. 이처럼 관개수자원 이용률은 계절과 가용 수자원 양에 따라 변동이 있다. 전체 이용량은 꾸준히 증가했고 전체 관개면적 또한 지난 이십여 년 계속 증가해, 2016년에 약 283만ha에 이르렀다<표 3>(FAOSTAT).

<표 3> 관개면적 추이

	1995	2005	2016
관개면적(천 ha)	2,510	2,678	2,830

자료: FAOSTAT.

2.3. 생산

프랑스의 주요 농산물은 곡류, 당류, 과채류, 포도주, 우유 및 유제품, 육류 및 기타 축산물로, 사실상 세계 식품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농산물 품목들을 거의 모두 아울러 생산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요 농산물은 사탕무, 밀, 옥수수, 감자, 포도, 유채, 우유, 돼지고기등이다<표 4>. 곡류 가운데 밀 생산량은 2017년 세계 5위, 옥수수 생산량은 세계 11위이다. 사탕무 생산량은 3,438만 톤에 달해 유럽에서 가장 많고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유럽연합 역내 주요 쇠고기 생산국인 프랑스는 광우병 등의 여러 위기 이후에도 세계 7위수준의 생산량(2017년 1,423만 톤)을 유지하고 있다(FAOSTAT).

<표 4> 프랑스 주요 생산품목

순위	품목	생산량(2017년, 톤)	품목	생산액(2016년, 천 달러)
1	밀	36,924,938	우유	7,282,364
2	사탕무	34,381,064	쇠고기	5,132,614
3	우유	24,400,000	포도	3,570,910
4	옥수수	14,121,680	돼지고기	3,312,293
5	보리	10,545,427	밀	3,303,079
6	감자	7,342,203	닭고기	1,717,265
7	포도	5,915,882	사탕무	1,453,654
8	유채	5,200,000	유채	1,078,249
9	돼지고기	2,136,276	감자	1,059,046
10	사과	1,710,755	옥수수	966,332

자료: FAOSTAT.

2.3.1. 지역별 재배면적

2017년 이용 농지면적은 2,867만 ha로 프랑스 영토 절반(52.2%)에 가까운 면적이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 1950년 국토면적 대비 농지면적 비중이 62.6%, 1980년 57.8%, 2000년 54.3%, 2010년 52.7%였던 것을 감안하면 농지면적 비중은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역

별로도 농지면적 비중은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북서부의 농지비중은 60~80%까지 도달하 는 반면 남동부 지역은 40%대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많다<그림 1>(Agreste 2018). 전체 농지면적의 약 60%는 주로 곡류와 사료작물 위주의 경종작물 재배지(67.37%)로 쓰이고 다른 34%는 영구 목초지(32.63%, 2016년)로 축산활동이 이루어지며 포도밭, 과수원. 기타 여러해살이 채소작물 재배지가 나머지 3~5%의 경지면적을 차지한다(FAOSTAT; ADFEW 2015).

단위: % 2017 0 - 4011 40 - 50 50 - 6060 - 70

<그림 1> 프랑스 지역별 농지 비중 분포(2017년)

자료: Agreste (2018).

유럽 본토의 경작지는 기후가 온화한 위도 45도 지역에 많이 분포하며 기후와 토양화경 덕분에 온대기후대의 다양한 농축산물이 생산된다. 본토와는 기후토양조건이 상이한 과들 루프(Guadeloupe)나 마르티니크(Martinique) 같은 해외영토에서는 열대과일 생산량도 많 다. 이 때문에 프랑스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거의 모든 주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이 다. 지역별로는 농업시스템에 적합한 한두 가지의 품목을 특화하여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생산시스템과 품목별 생산 현황과 지역 분포는 경종농업과 축산업으로 나누어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2.3.2. 경종농업

경종농업이 활발한 지역은 주로 북부와 서부이며, 특히 파리 분지(Paris Basin)나 아키텐 분지(Aquitaine Basin)등의 강 유역에서는 쌀을 포함한 단일작물의 재배가 대규모로 이루어 진다. 곡창지대는 생육에 적합한 자연 환경이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도시의 소비시장 접근성도 우수해 대형 농산업 기업과 연계하여 농산물을 상품화하는 경우가 많다. 특용작물(specialty crop)은 프랑스 전역에서 재배되지만 론(Rhone), 루아르(Loire), 가론 (Garonne) 계곡처럼 협소한 지형에 주재배지가 많이 분포한다(ADFEW 2015).

경종작물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에 재배되는 것은 단연 곡물(1,327만 9,702ha, 2017년)이고 그 중에서도 밀(546만 4,689ha), 보리(167만 831ha), 옥수수(161만 4,118ha) 순으로 재배면적이 넓다. 2017년 곡물의 총 수확량은 약 9,198만 톤이었고 2016년 곡물 생산액(70억 8,162만 달러)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약 12.9%를 차지, 곡물 수확면적은 총 경지면적의 절반이상인(52%) 961만 ha에 달했다(FAOSTAT).

서부 지역이나 파리 분지 일대가 주요 재배지인 밀의 생산량은 2017년 3,692만 4,938톤이며 전국 수확면적은 546만 4,689ha로 추산된다. 생산량과 수확면적에서 밀의 뒤를 잇는 것은 보리와 사료용 옥수수이다. 보리의 2017년 생산량은 1,054만 5,427톤, 수확면적은 167만 831ha에 달했으며 주산지는 북동부 그랑테스트(Grand Est)지역이다. 옥수수는 같은 해 161만 4,118ha의 수확면적에서 1,412만 1,680톤이 생산되었으며(FAOSTAT), 남동부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Provence—Alpes—Cote d'Azur)나 동부의 알자스(Alsace) 지역에서 많이 재배된다(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de l'alimentation 2015).

쌀은 일반적으로 론 델타(Rhone Delta)의 관개농지에서 재배되며 옥수수, 과일, 채소, 와인은 중부와 남부 지중해안을 아우르는 넓은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와인 산지로는 부르고뉴(Bourgogne), 샹파뉴(Champagne), 보르도(Bordeaux), 알자스(Alsace)가 해외시장에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서부, 북부를 제외하고 동부의 가파른 경사지, 계곡지대, 남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와인용 포도가 재배되고 있다(ADFEW 2015). 전체 농지면적약 7분의 1에 해당하는 서부 지역의 방대한 토지에는 사료작물 재배가 이루어진다. 유럽연합이 소 사육두수 감축을 권고하면서 1980년대 초부터 프랑스 사료작물 재배면적은 감소하고있으나, 그럼에도 사료작물 생산량과 재배면적은 여전히 높다.

사료작물과 곡물 재배면적과는 대조적으로 유지작물 수확면적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6년 유지작물 수확면적은 전체 경지면적의 24%에 이르렀으며, 유지작물 가운데 수확면 적과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은 유채(유지작물 수확면적의 32%, 생산량의 70%)와 해바라기 씨(유지작물 수확면적 14%, 생산량 20%)이다(FAOSTAT).

포도(84억 8,598만 달러)를 포함한 전체 과일과 채소류 수확면적은 경지면적의 7%에 불과하지만, 그 생산액은 프랑스 전체 농업생산액의 25~30%를 차지하는 주요 소득 작물이다. 먼저, 과수면적은 2017년 약 87만 ha이었으며 과일 생산량은 886만 톤에 달했다. 견과류와 포도를 과일류에서 제외하면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과일품목은 사과, 복숭아, 멜론, 자두, 살구, 배 순이다. 주요 과일품목 산지는 론(Rhone) 델타, 가론(Garonne) 계곡 지대와 알프스가 위치한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전체 과일 생산량 60%이 생산된다. 한편, 감자(2017년 734만 톤), 뿌리·덩이줄기채소(2017년 737만 톤)와 두류(같은 해 1만 톤)를 제외한 2017년 주요 채소 생산량은 458만 톤으로 유럽에서 세 번째로 많다. 주요 채소 작목은 토마토, 당근, 양파 등이다(Ministére de l'agriculture et de l'alimentation 2015). 채소류는 지중해안 지역에서도 재배되지만 사탕무와 감자의 주산지인 서부 브르타뉴, 북부의 오드프랑스 지역이나 남서부 일대에서 특히 많이 재배되다(FAOSTAT).

프랑스산 와인은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프랑스에서 포도재배는 단연 부가가치가 높다. 와인산지로 유명한 랑그독-루시옹(Languedoc-Roussillon)과 보르도(Bordeaux) 지역에 포도 재배지가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프로방스(Provence)나 알자스(Alsace) 주, 론(Rhone)과 루아르(Loire) 계곡 지대, 푸아투-샤랑트(Poitou-Charentes), 샹파뉴(Champagne) 주도 주산지이다. 2017년 포도 수확면적은 약 74만 ha이며 생산액은 84억 8,598만 달러를 기록했다 (FAOSTAT). 생산량의 45%가 적포도주, 43%가 백포도주, 12%가 로제와인이며, 90% 이상의 와인이 지리적 표시제나 와인산지 명칭 통제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Ministére de l'agriculture et de l'alimentation 2015). 유럽연합 원산지명칭보호와 지리적 표시제가시행되고 이를 프랑스에서도 기존 품질표시제와 통합해 실시하면서부터 고품질 와인 생산은 증가하고 지리적 표시를 적용하지 않는 일반 와인 생산량은 현저히 감소했다 (Encyclopaedia Britannica).

2.3.3. 축산업

축산업 생산액은 프랑스 농업생산액의 약 47%를 차지하며 유럽 역내와 세계시장으로의

수출 규모도 큰 편이다. 특히 프랑스 소 사육두수는 약 1,856만 3,200마리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데 그 뒤를 잇는 독일과 영국보다 월등히 많으며, 쇠고기 생산량은 연간 140만 톤(2017년)에 달한다(FAOSTAT)<표 5>. 남부의 지중해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가축 사육이 이루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소 사육은 노르망디(Normandy) 지역을 포함한 프랑스 북부와 서부의 습한 지역에서 활발하다. 반면, 양과 염소 사육은 건조하고 산악지형이 많은 남동부 알프스(Alpes)나 중부와 남부에 걸친 산맥인 '마시프 상트랄(Massif Central)'에서 이루어져, 사육가축별로 지역 분화가 나타난다. 양돈과 양계 농장은 전국에 두루 분포하되 서부의 브르타뉴(Brittany) 주에는 대규모 계열농가가 많다(ADFEW 2015).

우수 축종을 보유하고 개발하는 프랑스에서는 번식농가도 여전히 많다. 노르망드(Normande), 몽벨리아르(Montbeliarde), 아봉당스(Abondance) 등은 우유 생산을 위한 종(유용종)으로, 샤롤레(Charolais), 살레르(Salers), 리무쟁(Limousin) 등은 육류 생산에 특화한 종(육용종)으로 로 인기가 높아, 스페인을 포함한 여러 나라로 수출되고 있다.

전체 암소 사육두수 중 약 절반이 우유 생산과 동시에 번식 목적으로도 길러졌다가 최근에는 이러한 겸용 젖소 사육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우유 생산에 특화한 젖소 농장 규모는 전국 평균 40두까지 증가하는 등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체 유용종 사육두수는 매해 약 1% 감소해 2018년에는 355만 마리로 집계되었다(EUROSTAT). 1980년대 이래로 프랑스 소 사육두수가 감소하고 유용종에 비해 육용종이 증가한 것은 EU 우유 생산량 할당 제 실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프랑스는 독일에 이은 유럽 2위의 우유생산국으로 2017년 2,440만 리터가 생산되었다<표 5>.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거나 유지되다가 2016년과 2017년에 2015년 대비 약 3% 감소했다. 우유생산과 유제품 가공은 지역적으로도 편중되어 있고 소수의 대형 농가와 업체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서부의 브르타뉴(Brittany)와 페이드라루아르(Pays de la Loire) 지역이 프랑스 전체 우유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생산한다. 주요 낙농지역을 제외한다른 지역에서는 사실상 우유 생산량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대규모 농가와 업체, 소수 지역을 중심으로 재편된 프랑스 축산업 구조에 더해, 이상기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최근 일부지역에서 우유 생산량이 급감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2018년 늦봄과 여름 사이 고온과이상 일조량으로, 지역 내 우유 생산량이 25% 이상 하락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 치즈를만들기 위해 주로 쓰이는 산양유의 생산량은 우유 생산량의 2,4%(2017년 59만 톤)에 불과한데

<표 5>, 산양유 생산 활동 또한 우유 생산의 지역편중 현상과 유사하게, 소수 지역에 국한되어 이루어진다. '푸아투-샤랑트(Poitou-Charentes)' 주에서 전체 산양유의 52%가 생산되고 '미디피레네(Midi-Pyrénées)' 주에서도 산양유 생산 목장들이 일부 있다(ADFEW 2015).

<표 5> 주요 축산품목별 생산량(2017년)

품목	생산량(톤)
돼지고기	2,136,276
쇠고기	1,423,404
닭고기	1,102,774
달걀	955,000
오리고기	235,482
우유(소젖)	24,400,000
산양유(염소젖)	590,000

자료: FAOSTAT.

1984년 유럽연합은 우유 과잉생산과 시장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공동농업정책(CAP)를 통해 쿼터를 도입하고 버터와 분유 생산을 위한 공공 저장시설 운영 지원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14년 말 우유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가격변동도 심화되면서 다량의 프랑스산 우유가 치즈로 가공되기 시작했다. 국내 치즈 소비량은 생산량을 넘지 못하고 연간 54만 톤의 치즈가 주로 조리된 완제품 형태로 수출된다. 2016년 프랑스는 우유, 치즈, 유청, 탈지분유 등을 포함해 총 1,298만 톤의 유제품을 수출한 동시에, 치즈, 우유, 버터, 크림, 연유 위주의 유제품을 총 641만 톤 수입했다(FAOSTAT).

프랑스 양계(2016년 17억 9,367만 달러)와 양돈(33억 7,848백만 달러) 부문은 집약축산 형태로 발전했고 현재 전체 농업부가가치 10%를 창출한다. 2017년 닭고기는 110만 2,774톤이, 돼지고기는 213만 6,276톤이 생산되어<표 5>, 돈육 생산량은 독일과 스페인에 이어유럽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앞서 언급한, 대규모 계열양돈가가 많은 서부 브르타뉴 (Brittany)와 페이드라루아르(Pay de la Loire) 지역에서 전국 돈육 생산량의 절반이상이생산된다. 이 지역에서 다량 발생한 낙농 부산물을 돼지 사료로 주기 시작하면서 양돈업이발전한 것으로 전해진다(Encyclopaedia Britannica; FAOSTAT).

2.4. 수출입

프랑스의 전체 수출량의 약 12%가 농산물과 식료품이며 2016년 농식품 수출액은 총 602억 7.199만 달러였다(Encyclopaedia Britannica; FAOSTAT). 그 중, 밀, 보리, 옥수수, 생수, 정제설탕 등이 수출량이 가장 많은 품목들이며, 주류, 밀, 치즈, 조리식품, 과자류 등의 수출액이 높다<표 6>. 유럽 역내 무역에서는 음료와 주류 수출액이 가장 많고 그 뒤를 잇는 품목은 우유와 유제품. 곡류 등이다. 역외 무역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지만 음료 와인. 주류의 수출액이 다른 식품군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프랑스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은 벨기에,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네덜란드, 중국, 스위스, 일본, 알제리 등이다(Agreste 2018). 주요 수출대상국이 유럽 국가나 미국으로 편중되어 있어 2008 년 세계금융위기를 전후로 농식품 수출이 타격을 받기도 했다.

<표 6> 프랑스 주요 수출품목(2016년)

순위	품목	수출량(톤)	품목	수출액(천 달러)
1	밀	18,343,653	와인	9,106,767
2	보리	5,868,273	증류주	4,598,791
3	옥수수	5,440,854	밀	3,364,258
4	생수	4,043,893	치즈	2,917,472
5	정제설탕	1,928,187	조리식품	2,123,947
6	감자	1,846,822	과자류	1,836,533
7	유채	1,484,478	옥수수	1,626,946
8	와인	1,442,555	초콜릿	1,424,603
9	비주류음료	1,193,815	애완동물식	1,359,473
10	몰트	1,165,874	보리	1,064,941

자료: FAOSTAT.

프랑스는 농산물 수출액도 많지만 수입액(2016년 총 510억 8,341만 달러)도 상당해서 농산물 무역수지가 늘 흑자이지는 않다. 식품군별로는 곡류와 조리식품군. 유제품군이 흑자 수지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과일채소류와 육류 및 육가공품군은 수출액에 비해 수입액이 점차 높아져, 최근 십여 년간 특히 수지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표 7>.

<표 7> 농식품 무역수지 변화

분류	1995	2005	2016
곡류 및 조리식품	5,510	5,299	6,442
과채류	-2,688	-3,881	-6,968
육류 및 육가공식품	433	-255	-1,214
유제품	2,474	2,708	3,043

자료: FAOSTAT.

수입식품 가운데 수입량이 가장 높은 품목은 생수, 대두박, 대두, 유채, 밀 등이며, 초콜릿, 커피, 과자류, 담배, 치즈 등의 수입액이 높다<표 8>. 한편, 수입액 기준으로 유럽 역내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육류 및 육가공품이고, 우유 및 유제품, 곡류가공품, 음료·와인· 주류가 그 뒤를 잇는다. 역외무역을 통해서는 사료작물 수입액이 가장 많다. 프랑스가 농산 물과 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 폴란드, 브라질, 모로코, 미국 순으로(Agreste 2018), 수입대상국도 주요 수출대상국 구성과 유사하며 유럽연합 역내에 치중해 있다.

<표 8> 프랑스 주요 수입품목(2016년)

순위	품목	수입량(톤)	품목	수입액(천 달러)
1	생수	4,895,698	조리식품	2,178,480
2	대두박	2,969,278	초콜릿	2,108,091
3	대두	1,082,549	커피	1,945,162
4	유채	1,029,140	빵·과자류	1,809,591
5	밀	936,885	담배	1,709,954
6	해바라기박	879,694	담배	1,420,797
7	조리식품	860,366	치즈	1,388,085
8	비주류음료	849,119	증류주	1,286,551
9	보리맥주	781,431	대두박	1,144,332
10	와인	773,941	조리과일	1,019,037

자료: FAOSTAT.

3. 유기농업

프랑스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농장 규모와 수 등의 생산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농산물생산 및 마케팅 시스템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다. 농업중간재 사용량이 크게 늘고 관개시설이용률이 높아졌으며, 유리온실이나 캐노피 설치 등을 통한 통제된 환경에서의 농작물 생산도 보편화되었고 계약재배가 크게 증가했다. 농업 생산 및 마케팅 구조와 기술 변화로 주요 농산물 생산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나, 동시에 농업부문 종사자 수가 급격히 줄거나 농가의부채 부담이 늘어났고 부정적 환경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농업 현대화를 내건 발전 프레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생산 기술과 마케팅 구조의 문제점이 점차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다. 현대화를 지향하는 기존 농업 발전 방식과 구조로 농민, 농업, 농촌이 지속하기 어렵다는인식이 프랑스 농업계와 국민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프랑스에서도 유기농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Encyclopaedia Britannica).

지난 이십여 년의 농민들의 유기농업 전환 노력과 정부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홍보와 지원 과정에서 유기농 식품 소비의 이점이 소비자에게 확산되었으며 유기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높아졌다. 소비자 인식변화를 바탕으로 유기농 시장 규모는 점차 커졌고 현재 프랑스 전체 식품 시장 규모의 약 15%를 차지한다. 2015년 10%였던 것을 감안하면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FreshPlaza.com).

3.1. 재배면적과 주요 품목

Agence BIO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에 2017년 말 5만 4,044개의 유기농업 경영체가 있으며 이는 전년 3만 2,264개에서 약 14.7% 증가한 수치로, 그 증가세를 짐작케 한다. 집계된 5만 4,044개 유기농업 경영체 가운데 3만 6,691개는 생산자이며 나머지 1만 7,353개의 유기농 경영체는 가공업자, 유통업자, 수입회사 등의 농업 후방산업체이다(Agence Bio 2019). 생산 인력과 유기농산물 가공, 유통, 판매 활동 종사자를 포함한 유기농업 부문 직접 고용 인구도 2017년 13만 4,500명에 달하며 2016년과 2017년 사이 유기농업생산 관련 전일제 일자리는 1만 개 이상 늘어났다(Valleix 2017).

전환기 면적을 포함한 전체 유기농 재배면적은 2016년 154만 ha에서 2017년 약 174만 ha로 늘어나(Agence BIO 2019) 프랑스 농지면적의 6.59%에 이르렀다. 프랑스 정부는 2022년까지 유기농지 비율을 15%까지 늘리기 위한 정책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아직 전국에 고루 유기농생산이 보편화되지는 않았고 전체 유기농지의 60%가 옥시타니(Occitanie), 누벨 아키텐 (Nouvelle Aquitaine), 오베르뉴 론 알프스(Auvergne-Rhone-Alpes), 페이드라루아르(Pays de la Loire) 지역에 편중 분포한다(SIMA 2019).

재배면적 기준으로 유기농 생산 비중이 높은 품목군은 건조채소(27.9%), 과일(19.5%), 향초 및 약초(19.5%), 포도(10%), 사료작물(9.2%) 순이다(Agence BIO 2019). 반면, 유기농지 면적 비중이 낮은 품목군은 신선채소(5.6%)와 곡류(3.3%) 등이다. 2016년에 이어 2017년 축산농가의 유기 축산 전환 사례도 늘고 있다. 유기축산물을 생산하는 소는 전체 사육두수의 4.93%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육용종은 4.5%, 유용종은 5.4%다. 유기농 방식으로 사육되는 양, 염소, 돼지는 전체 사육두수 대비 각각 7.1%, 7.7%, 1.1%다. 유기농 육계(고기용 닭)는 전체 사육두수의 1.4%, 유기농 산란계는 약 10.1%로 추산된다(Valleix 2017).

3.2. 시장 규모와 소비 행태

2017년 유기농식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95억 4,522만 달러(이하 2016.8~2019.7 3년 평균 유로-달러 환율 1.14 적용)를 기록했다(Agence BIO 2019; Valleix 2017). 유기농식품 시장매출액 전체에서 판매액 비중이 큰 품목은 가공식품(24%), 과일채소류(19%), 우유 및 기타유제품(16%), 주류(13%), 육류(10%), 해산물, 냉동식품, 조리간편식 (7%)과 제과제빵류(7%) 순이다(Agence BIO 2019).

유기농 시장이 발달하기 시작한 지난 20여 년간의 유기농식품 주요 판로는 단연 슈퍼마켓 (2017년 매출액 41억 6,328만 달러)과 유기농 전문점(동년도 매출액 32억 7,636만 달러)이었다. 점차 많은 프랑스 농업협동조합들이 유기농 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유기농 코너를 도입한 슈퍼마켓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농가와 소비자간 직거래(2017년 약 11.4억 달러) 비중도 눈에 띄게 늘었고 기관 급식이나 외식업(2017년 5억 1,528만 달러)도 유기농 주요 판로로 부상하고 있다(Agence BIO 2019).

슈퍼마켓 같은 일반 소매점에서 유기농식품을 확대 취급하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더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 점이 최근 십여 년간의 프랑스 유기농 시장 규모 확대를 이끈 주요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동 기간 유기농 식료품 전체 매출은 약 27%, 유기농 과일 매출은 22%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문제점도 출현하고 있다.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수요가 높아진 유기농 제품 판매가를 일반(비 유기농) 식품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관행농업에 비해 생산비용이 더 많이 드는 유기농업 생산자에게 출하가격 하락 압력이 지속해서 작용했다. 이러한 비용위험은 관행농업을 유지하는 농가들의 추가적인 유기농업 전환을 고심케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프랑스 유기농식품 소비량의 70%는 프랑스산이지만, 아직은 국내생산량이 소비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거나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되지 않는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소비량의 30%는 수입된다. 전체 수입량의 15%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들어오며 국가별로는 스페인,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순으로 유기농식품 수입량이 많다(FreshPlaza.com).

3.3. 소비자인식

프랑스는 약 45만 개의 농식품 회사들이 있으며 6,700만 인구가 있는 큰 소비 시장으로, 국민들의 인식과 소비행태가 바뀌면서 유기농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은 내포되어 있었다. 더불어, 기존의 중산층 소비자뿐만 아니라 빈곤 취약 계층을 포함한 여러 사회계층의 유기농 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최근 눈에 띄게 증가했다(SIMA 2019).

Agence BIO의 유기농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6%가 유기농산물 소비와 섭취를 늘릴 의향이 있으며 85%가 유기농업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82%의 응답자는 유기농산물을 신뢰하며 약 75%가 한 달에 최소 한 번은 유기농 식사를 실천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녀가 있는 응답자 가운데 90%는 학교 급식을 위한 유기농 식재료 활용에 관심을 표했다(Agence BIO 2019). 유기농식품 주요 소비층 가운데는 여성과 인구 10만이상 도시 거주자가 많으며, 유기농식품을 선택하는 주요 이유로 건강(66%), 환경(58%), 품질과 맛(56%) 등을 들었다(FreshPlaza.com).

소비자들은 구매하는 제품의 생산과정이 환경과 노동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을 따르는지, 공정한 거래인지, 유기농인지, 채식주의 식단인지 등에 관심이 높은 편이며 이러한 고려를 구매결정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프랑스 시장은 밀레니엄 세대라 일컫는 18-25세의 청년층 소비자들이 특히 식품소비와 환경의 지속가능성 등의 대의와 품질 신뢰가능성을 구매결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고 유기농식품 시장의 중요한 잠재 소비계층으로 보고 있다(Agence BIO 2019).

3.4. 공공정책

유기농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논의는 1998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여러 공공부문계획들이 수립되었다. 생산자 외에도 연구자, 교사, 가공업자 등 여러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홍보, 안내, 정책 지원 활동을 통한 유기농업 발전 과정에 참여해왔다. 초기 정책논의 단계부터 여러 이해관계 집단이 참여했고 동시에 소비자 시장 수요가 증가하면서 각계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었다는 평을 받는다. 2008년 프랑스 농식품부 장관이 발표한 11억유로(약 12억 5,400만 달러)상당의 새로운 유기농업 발전 계획("Ambition Bio 2022 Program")은 다음 7개 목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기농업과 관련한 여러 이해관계자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일면을 엿볼 수 있다<표 9>(Valleix 2017).

<표 9> 프랑스 유기농업 발전계획(Ambition Bio 2022) 7개 목표

	주요목표
1	2022년까지 유기농업 면적 비중 15%까지 확대
2	6백만 유로의 "아브니르 비오(Avenir Bio)" 펀드 활용한 유기농업 부문 구조화
3	빈곤 취약 계층을 포한한 모든 소비자를 위한 유기농산물 공급 확대 지원 - 2022년까지 공공급식재료의 20%를 유기농산물로 공급
4	유기농업 관련 연구 개발의 우선순위 재정의
5	농업가치사슬 주요 행위자(생산자-가공업자-수출입업자 등) 대상의 교육과 훈련
6	개정 공동농업정책(2021.6. 예정) 고려한 프랑스 국내 유기농업 관련 규제 검토 조정
7	프랑스 해외영토 농장의 유기농업 도입 촉진

자료: Valleix (2017).

유럽에서 일인당 유기농 소비액이 가장 높은 덴마크를 포함해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기농업 성장과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 유기농업 생산자에게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기농식품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를 조직하고 추진한다. 프랑스 정부는 농업과 먹거리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업이 더욱 보편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확신을 갖고 꾸준한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4. 결론 및 시사점

프랑스는 세계시장에서 주요하게 소비되는 곡물, 과일, 채소, 육류, 유제품 등 다양한 품목을 생산할 뿐 아니라, 그 품목들의 생산량도 세계적 수준을 자랑한다. 자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생산액 비중은 크지 않지만, 유럽 역내에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업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나 발전단계상으로 유사한 주변국들처럼, 프랑스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을 늘리면서도 농업 생산 규모화와 기술 현대화를 촉진해 먹거리 생산량을 늘리고 식품수출을 확대했다. 이러한 농업 발전 모델은 200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유럽 공동농업정책의 방향과도 일부 맞닿아 있다.

그러나 프랑스 농업이 양적 확장을 위한 규모화와 현대화만을 지향하며 발전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가 적극 받아들인 공동농업정책 또한 농축산물 품질 관리와 향상을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다. 유럽 통합 정책 적용 이전부터 프랑스는 산지 표시 등을 통해 우수 품질의 농산물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었다. 최근 지속된 유기농업 성장세는 생산자와 소비자, 정부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친환경적이며 질 좋은 농산물의 진가를 인정하고 식품이 농장에서 식탁까지 오는 과정을 신뢰한 것에 바탕을 둔다. 유기 농이나 글루텐프리 식품과 같은 새로운 가치와 품질을 선보이는 농산물을 소비자가 슈퍼마켓처럼 보편적인 유통판매 경로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프랑스 농식품부문의 지속적인 변화를 견인했다.

여느 나라와 비슷하게 프랑스에서도 농산물 출하가격 하락 압력은 지속되고 대형유통업체와의 갈등도 여러 차례 표면화되었지만 정부가 이러한 갈등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때맞게 대처해 왔다. 이르게는 2021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유럽 공동농업정책을 포함해, 농업 생산과 유통 구조와 제도 변화를 이끄는 요인은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다.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지식, 태도와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본질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일은어느 나라의 농업부문에나 필요한 일이다. 농업발전 방향에 대한 프랑스 사회의 폭넓고지속적인 논의, 발 빠른 대응을 우리가 충분히 눈여겨볼 만하다.

참고문헌

- Agence BIO (2019) "The Organic Market in France." [BIOFACH 발표자료]. 발표일: 2019.2.13.
- Agreste (2018) "Statistique Agricole." 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de l'alimentation: Paris.
- Agricultural Dept. of the French Embassy in Washington (ADFEW) (2015) "Agriculture in France: From the wheat in Beauce to the Limousine of the Massif Central, https://frenchfoodintheus.org/1913, 게시일: 2015.5.7., 검색일: 2019.6.13.
- Encyclopaedia Britannica. "France >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https://www.britannica.com/place/France/Agriculture-forestry-and-fishing, 검색일: 2019.6.14.
- 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de l'alimentation (2015) "Overview of French Agricultural Diversity," https://agriculture.gouv.fr/overview-french-agricultural-diversity. 게시 일: 2015.9.22., 검색일: 2019.6.14.
- Valleix, Sophie (2017) "Organic Agriculture in France." http://isofar.org/isofar/index.php/ 2-uncategorised/253-organic-agriculture-in-france. 게시일: 2017.6., 검색일: 2019.6.19.
- SIMA (2019) "The Organic Industry Displays Incredible Growth in France." https://en.simaonline.com/SIMA/Latest-news/Incredible-growth-of-the-organic-industry-in-France 검색일: 2019.6.19.
- FreshPlaza.com (2019) "French organic market is growing." https://www.freshplaza.com/article/2188330/french-organic-market-is-growing 게시일: 2018.1.23., 검색일: 2019.6.18.

참고사이트

DataBank | The World Bank (http://databank.worldbank.org)

EUROSTAT database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FAOSTAT (http://www.fao.org/faostat)

Ministére de l'agriculture et de l'alimentation (http://agriculture.gouv.fr)